

가나안의 편지

※위 제호는 일가 김용기 선생님께서 쓰신 필체입니다.

2025년 5월호



표지사진은 가나안 3S과정 14기 교육 중 찍은 사진입니다.

5월, 가나안의 '살림'

사람을 살리는 '교육'



CGLC 카이스트 글로벌 공헌단이 다녀갔어요!



2025년 파마리서치의 두번째 교육이 진행되었어요



세마을 운동 중앙회가 가나안농군학교를 방문했어요:)



신도중앙교회를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땅을 살리는 '농장'



유기농 브로콜리 판매가 시작되었어요!



고구마도 심었어요! 10월에 가나안 식구들이 함께 수확할 예정이에요.

서로 돌보는 '살림'



가나안농군학교 청년마을인 '꿈마을' 청년들이 가나안에 함께 사는 가족분들께 입주인사와 선물을 돌렸어요!



본관 1층에 북카페와 도서실 만드는 공사가 마무리 되었어요. 살림의 공간에 모두를 초대합니다!

c o n t e n t s



0 4 테마 스토리 '살림'

일가수도원 원장 오세택 목사



0 6 가나안의 교육소식

- 파마리서치 3 S과정 14기 교육
- KAIST 글로벌 공헌단 교육
- 신도중앙교회 견학
- 도미니카 공화국 · 온두라스 새마을운동 중앙회 초청연수



0 7 가나안농군학교친환경농장 소식



08 후원단체 및 개인 (2025.04)

A middle-aged man with grey hair and glasses stands in a wooden gazebo. He is wearing a blue short-sleeved polo shirt and grey shorts. He is holding a smartphone in his left hand. The gazebo has a wooden frame and a bench. The background is a lush green forest.

5월 테마 스토리

'살림'

일가수도원 원장 오세택 목사

'살림'

‘살림’이란 말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가장 친숙한 의미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리라. ‘생명’이라 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나고 자라고 호흡하고 열매 맺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이리라. 그러므로 살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상과 우주의 모든 존재를 살피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도록 하는 것이리라.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왜 우리는 생명을 살려야 하는가?’ ‘왜 우리는 자기가 아닌 타자와 외적인 존재를 무한 책임감을 요구하는 살리려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만나게 된다. 성경적인 답은 지극히 단순하다. 우리가 서로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주 공간에 모든 피조물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창조되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광들 돌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 뜻을 향해 함께 가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한 혈통으로 태어났다. 우리는 서로 하나이다. 그러기에 서로 무한 책임감을 갖고 서로를 돌아보아 살리는 것이 필연이며 윤리의 근본이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웃이다. 소멸되는 종을 살리고 보존하는 것이 성도이다. 가나안의 일가 정신도 서로 하나임을 인정하고 서로를 향해 무한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 되어 살리는 일은 타락하고 부패하므로 자기애적 존재가 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행동하겠지만 자기를 드러내는 차원에서 끝날 것이다. 살리는 일을 자신의 존재 이유로 삼을 수 있기 위해서는 십자가 부활로 거듭나야 한다. 다시는 자기애적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타자애적 삶을 살기로 구원받은 사람이라야 가능하다. 십자가 부활로 타자애적 섬김의 존재가 된 성도는 자신이 썩어지므로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된다. 연약한 이웃을 살리기 위해 평생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된다. 모두가 살기 위해 자신이 소유를 줄이자는 김용기의 외침이 오늘따라 그립다.

일가수도원 원장 오세택 목사 드림



KAIST 글로벌 공헌단 with CGLC

지난 5월 9일부터 10일까지, KAIST 글로벌 공헌단이 CGLC(가나안 세계지도자센터)와 함께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동티모르, 카자흐스탄 등으로 파견될 학생들의 국제개발 협력 준비 과정으로, 강의와 토론뿐 아니라 브로콜리 결순 따기, 스마트팜 수확 체험을 통해 미래 농업과 국제 협력의 현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나안의 역사와 국제 농군학교 협력 사례를 접하며,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세계적인 흐름과 연결되어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농군학교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현장에서 배우고 세계와 연결되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교육팀

가나안 3S과정 14기 (주) 파마리서치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파마리서치 직원들이 가나안농군학교에서 3S교육(Stop, Stay, Share)에 참여했습니다.

첫날은 가나안의 역사와 정신을 배우고, 몸을 움직이며 서로의 마음을 여는 시간으로 시작했습니다. '회복탄력성' 강의와 감사일기를 통해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돌아보는 하루였습니다.

둘째 날엔 고구마를 심고, 마을을 걸거나 라탄 조명을 만들며 '머무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함께 바비큐를 준비하며 공동체의 따뜻함도 나눴습니다.

마지막 날은 '일과 삶의 조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주제로 3일간의 여정을 정리했습니다.

짧지만 깊었던 2박 3일. 이번 교육이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교육팀



신도중앙교회 견학

5월 16일, 신도중앙교회 성도들이 가나안농군학교를 방문해 김용기 장로의 신앙과 가나안 정신을 직접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태은 교장의 안내로 90여 년간 시대를 관통해온 가나안의 역사와 실천을 들으며,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과 소명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년마을과 스마트팜, 개척 현장을 둘러보며 "과거에 머물지 않고 지금도 살아 있는 신앙과 실천의 현장"이라는 참여자들의 소감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방문이 과거를 기념하는 시간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교육팀

새마을운동 중앙회 초청연수팀 도미니카 공화국 · 온두라스

5월 20일, 도미니카공화국과 온두라스 4개 지역의 공무원, 구청장, 농민 대표로 구성된 새마을운동 중앙회 초청연수팀이 가나안농군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김태은 교장님의 특강을 통해 가나안의 역사와 새마을운동의 기반이 된 실천교육의 정신을 배우고, 연수팀은 자국 내에도 이러한 교육 모델이 가능할지를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이어 연봉정 마을과 스마트팜을 견학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운영 사례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번 교류가 현지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팀



가나안농군학교친환경농장소식

**자연 그대로 담은
유기농 브로콜리**

가나안친환경농장 의 브로콜리는요

유기농 산지직송

1kg 당 13,500원 (택배비 포함)
1kg 추가시 10,000 비용추가

농협 | 312-0089-0307-71 (매곡주 : 김태은)
Mobile | 010-6800-5201 Tel | 033-762-5090
가나안친환경농장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림면 연봉정길5 친환경 농장



유기농 브로콜리 판매가 시작되었어요.

건강하고 맛있는 가나안농군학교 친환경농장에서 키운 유기농 브로콜리 주문을 받습니다.

1Kg당 13,500원 (택배비 포함)
1Kg 추가시 10,000원 비용추가

판매 계좌
농협 312-0089-0307-71(김태은)

문의
033-762-5090

후원 개인 및 단체 (2025.04)

개인

강명진 강찬진 권기범 권영인 김기혜 김예찬 김홍주 김축복 노광수 노병현 문태규 박수영 백도현 신민선 신민희 심두자 오혁진 이자경 장소영 장은숙 전상우 정성용 정연국 최만열

단체

충정교회 신림가나안교회 인애교회 온누리교회 강남푸른치과 거룩한 빛 광성교회 돌다리교회 서문교회 세인교회 대백선교문화재단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후원계좌 : 농협 307099-51-052161 (가나안복민재단)

가나안의 편지

2025년 5월호 : 살림



(재)가나안복지재단

가나안농군학교

CANAAN FARMERS SCHOOL

2650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림면 연봉정길 5

TEL (033)762-5090/5201 FAX (033)763-6478

5 Yeonbongjeong-gil, Sillim-myeon, Wonju-si, Gangwon-do, Rep. of Korea